

소규모 가족농의 다활동성 실태에 관한 연구

이혜원* · 김태연**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Pluriactivity of Small-Scale Family Farm Households

Lee, Hyewon · Kim, Tae-Yeon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income earning activities conducted by small family farms, so-called pluriactivity, in Korea. Traditionally small farm households have been regarded in Korea as those who have not only very limited economic capability, but also very low status in rural society. However, in Europe, since the 1990s, there have been some researches found out the role of small farms in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regions. These tended to conclude that such various economic activities of small farms'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ural region. Introducing the concept of pluriactivity from the European studies, this study carried out surveys and interviews with 38 small farm household in Chungnam region in terms of the fundamental reasons for pluriactivity and the impact on rural economies. The analysis revealed the main reason of pluriactivity could be the lack of income for family. Nevertheless, this study also identified another important reason of pluriactivity that small farms' desire to live in rural areas may drive them to do the pluriactivity. It may mean that farming could not be the main option for them to live in rural area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is pluriactivity has a positive impact on rural areas, such as landscape management, job creation, and cultural provision. Along wit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pluriactivit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ge. It then necessary concludes that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mus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farm households when they provide the support for farming and non-farming activities.

Key words : *family farm household, farm household income, non-farm activity, pluriactivity, small farm household*

*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박사과정

**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tykim@dankook.ac.kr)

I. 서 론

오늘날 한국의 농업은 소득의 양극화, 농민의 고령화, 높은 생산비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도시와 농촌의 격차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개발, 귀농과 귀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경지 규모 1 ha 미만 농가는 연간 농업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이었으며, 이들이 전체 농가의 73.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¹⁾ 특히, 농업의 규모화를 목적으로 추진했던 지금까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규모 농가들이 전체 농가에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농촌경제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들이 가진 사회경제적 특성을 밝히고 이를 농촌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작은 규모의 농가에 대한 연구(Turner, 1991)를 통해서 소위 취미농이라고 하는 수준에서도 농가가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농촌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이를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본다면, 소규모 농가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활동성(Pluriactivity)의 실태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이를 활용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농촌공동체의 유지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농가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는 최근 몇 개의 연구(Cheong and Kim, 2016; Kim et al., 2016)가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농가의 특성을 밝히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농가가 수행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은 농업 생산 규모와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농가가 일정한 형태의 농외활동을 수행한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농가의 농업 생산 규모에 따라서 농외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례 조사 연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평균 경작 규모보다 작은 수준의 농업 생산을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활동성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을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농업 생산현황과 농외활동 상황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러한 다활동성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면담조사를 통해서 밝힘으로써 농가의 다활동성이 단순히 소득 부족 때문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현실과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활동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 연구의 차별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kosis.kr, 2021. 10. 9.

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의 다활동성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한 연구라고 판단하여, 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문 및 면담조사가 가능한 범위를 충남으로 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러한 소규모 농가를 활용하여 농촌경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다활동성의 개념에 관한 논의

다활동성 개념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농가의 경영전략이자 농촌의 활성화 전략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농가의 농장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비농업적 소득 활동이 농업 활동과 결합하는 현상(MacKinnon et al., 1991)으로, 농가 또는 농가 구성원의 일부가 수행하는 영농활동과 비농업 활동의 경제적 조합(Huylenbroeck and Durand, 2003; Smith and McElwee, 2013; Kim and Kim, 2017 재인용)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다활동성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가의 다양한 경제활동이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에 있으며(MacKinnon et al., 1991; Evans and Ilbery, 1993; Niemela and Hakkinen, 2014; Igawe et al., 2020), 농가의 소득 확보를 위한 지극히 사적인 경제활동이 환경보존과 농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Marsden et al., 1986). 이렇게 농가가 다양한 경제활동을 병행 이유는 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가족 전통의 유지, 질 높은 식생활, 영농행위 자체를 즐기는 것과 같은 비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동도 관련이 있다(Subramanian, 2018)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활동성은 농가의 소득 증대 활동일 뿐만 아니라 농촌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를 수행하는 이유는 경제적 동기와 비경제적 동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통계지표를 통해 전체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럽에서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농업과 비농업 활동의 병행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겸업농이 증가하는 추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Kim과 Kim (2017)에 의하면 최근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농가의 비농업적 활동을 탈농의 징후로 인식하여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농외소득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보면, 농가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일정 부분 농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으로 간주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²⁾, Kim과 Park (2014)은 농가

2) 정부는 1960년대 말 농가 부업개발사업을 통해 농외소득 개발정책을 진행했다. 하지만 Kim과 Kim

의 겸업화가 농가 평균소득의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농가의 겸업이 일반적인 경제활동 형태이자 경제 상황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의 연구와 달리, 국내 연구에서는 다활동성(Pluriactivity)이라는 용어를 다중경제활동, 복합경제활동 등과 같이 경제와 소득에 중점을 둔 용어로 번역하여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농가의 다양한 활동을 단지 소득 확보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농촌의 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활동성을 ‘농업·비농업 분야 활동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농가의 경영전략’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농가의 다활동성이 경제적 목적만이 아니라 농가 구성원의 안정과 건강, 만족스러운 생활과 같은 비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도 수행하는 일종의 총괄적인 농가의 생존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검토

국내 농가의 농업과 비농업 활동 병행에 관한 연구는 농가의 소득구조에 따른 유형 구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소득 결정요인 및 정책적 제안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Seo와 Ryu (1993)는 우리나라의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평가를 통해 여건의 변화로 감소하게 될 농업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이 농외소득에 있음을 주장하며 지원방식의 전환과 타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 및 지원의 형평성 유지,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을 주장하였다. Choi (1978)는 농가 소득에 있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비중에 따라 전업형, 농업소득 의존형, 중간형, 농외소득 의존형으로 농가 유형을 구분한 바 있으며, Kim과 Chai (2009)는 통계청의 유형 구분인 전업농가, 1종 겸업농가, 2종 겸업농가를 기준으로 농가 유형별 소득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Kim 등(2016)은 표준 영농규모 2 ha와 경영주 나이 65세를 기준으로 청장년 중대농, 청장년 소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으로 농가 유형을 구분해 유형별 소득구조 실태와 과제를 분석했다. Lee와 Ha (2020)는 농가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재무 상태를 중심으로 8개 유형으로 분류해 재무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을 통한 농가 경제 실태에 관한 연구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다활동성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연구 또한 비록 소수이지만 이뤄진 바 있다. Jung (2016), Kim과 Kim (2017)은 농업과 농외활동의 결합을 바탕으로 농가(농장) 공간과 농업 활동에 따른 활동 범위를 연구한 바 있으며, Yoo 등(2005), Jang (2008)은 농가의 지역적 위치에 따른 현황을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다활동성 특성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지원

(2017)은 이러한 정책이 가족농의 유지와 재생산의 목적으로 다면적인 활동을 촉진케 하는 정책이었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했다.

책으로 직불금을 연결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Yoo, 2022).

이렇듯 외국의 다활동성 연구에 비해 한국은 농가의 소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다활동성의 개념이 담고 있는 다원적 측면의 역할과 농가의 다활동성 수행 목적에 관한 연구가 미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농가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점 역시 명확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소규모 농가의 다활동성 실태와 수행 목적을 심층 연구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Ⅲ. 소규모 농가의 다활동성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 다활동성 실태를 분석할 소규모 농가는 조사 시점에 실제 영농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경지면적이 1 ha 미만인 농가로 설정했다. 경지면적의 확인은 설문을 통해 응답한 여섯 가지 주 작목의 재배면적을 바탕으로 했다. 소규모 농가의 정의에 있어, 경지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는 영농형태의 차이에 따른 농업소득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소규모 농가의 정의를 경지면적 1 ha 미만의 농가로 한 것은 농촌에서 생활하기 위한 연간 생활비가 2,080.8만 원으로 조사된 것(농촌진흥청, 2020)과 경지면적 1 ha 미만의 농가는 연간 672.2만 원의 농업소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통계청, 2020)에 따라 면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준으로도 소규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한국 농가의 평균 경작 규모가 1.5 ha인 것을 고려해 설정하였다.

소규모 농가의 다활동성 실태 분석을 위해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설문을 통해 충남지역 5개 시·군 89호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과 농외활동 실태를 조사했다.³⁾ 이 중 소규모 농가의 다활동성 실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면담 조사를 병행하였다.⁴⁾ 조사 문항은 농가 구성원 및 경제활동 여부를 묻는 농가 일반현황, 농가소득에 있어 농업 및 농외활동의 비중과 형태, 향후 계획을 묻는 농업·농외활동 현황, 정주·생활 여건에 대해 12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조사된 설문자료는 Excel 2020, SPSS 27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3) 대상지 선정은 산지, 평지, 해안 등 지형적 특성과 도시 근교와 원교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했다. 군 지역은 부여, 청양, 시 지역은 읍·면 소재 농가로 당진, 아산, 천안이다.

4) 소규모 농가의 다활동성 실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농가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랐다. ① 가족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농가 ②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높은 농가 ③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농가의 다활동성 형태, 즉 농업과 결합한 농외활동의 수행 또는 농업과 연관되지 않은 독립적 성격의 농외활동을 수행하는 농가.

Table 1. Survey overview

Classification	Notes
Name	A survey on agricultural and non-farm activities of rural residents
Object	Check the pluriactivity of farm household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settlement conditions in rural areas.
Target	Farm household in Chungcheongnam-do
Questions	General status, Current status of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activities, Settlement and living conditions

2. 응답자 특성

전체 응답자(N=89)의 연령대는 4~50대가 49.5%(44명)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66.3%(59명)로 가장 많았다. 경지면적은 1 ha 미만과 1~5 ha 미만이 각각 42.7%(28명)로 나타났다. 농업 총수입과 농외 총수입은 각각 1,000만 원 미만이 24.7%(22명), 30.3%(27명)로 가장 많았다.

소규모 농가(N=38)의 연령대는 4~50대가 55.3%(21명)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65.8%(25명)로 가장 많았다. 경지면적은 0.2~0.4 ha 미만이 26.3%(10명)로 가장 많았으며 0.4~0.6 ha 미만이 21.1%(8명)였다. 농업 총수입은 1,000만 원 미만이 36.8%(14명), 농외 총수입은 1,000~2,000만 원 미만이 27.8%(10명)로 가장 많았다.

Table 2. Characteristic of respondent

Total respondent (N=89)		Frequency / percentage	Small farm household respondent (N=38)		Frequency / percentage
Gender	Male	52 (58.4)	Gender	Male	19 (50.0)
	Female	37 (41.6)		Female	19 (50.0)
Age	Under 30's	5 (5.6)	Age	Under 30's	3 (7.9)
	40's ~ 50's	44 (49.5)		40's ~ 50's	21 (55.3)
	60's	25 (28.1)		60's	7 (18.4)
	Over 70's	15 (16.9)		Over 70's	7 (18.4)
Number of house hold member	1 Persons	13 (14.6)	Number of house hold member	1 Persons	5 (13.2)
	2 Persons	59 (66.3)		2 Persons	25 (65.8)
	3 Persons	6 (6.7)		3 Persons	2 (5.3)
	Over 4 Persons	11 (12.3)		Over 4 Persons	6 (15.8)

Unit: number, %

Total respondent (N=89)		Frequency / percentage	Small farm household respondent (N=38)		Frequency / percentage
Size of cultivated land	Less than 1.0 ha	38 (42.7)	Size of cultivated land	Less than 0.2 ha	7 (18.4)
	1.0~3.0 ha	27 (30.3)		0.2 ~ 0.4 ha	10 (26.3)
	3.0 ~ 5.0 ha	11 (12.4)		0.4 ~ 0.6 ha	8 (21.1)
	Over 5.0 ha	8 (9.0)		0.6 ~ 0.8 ha	7 (18.4)
	No answer	5 (5.6)		0.8 ~ 1.0 ha	6 (15.8)
Gross farm receipts	Less than 10 million	22 (24.7)	Gross farm receipts	Less than 10 million	14 (36.8)
	10 ~ 20 million	15 (16.9)		10 ~ 20 million	9 (23.7)
	20 ~ 30 million	11 (12.4)		20 ~ 30 million	6 (15.8)
	30 ~ 40 million	13 (14.6)		30 ~ 40 million	3 (7.9)
	40 ~ 50 million	6 (6.7)		40 ~ 50 million	3 (7.9)
	50 ~ 100 million	14 (15.7)		50 ~ 100 million	3 (7.9)
	Over 100 million	5 (5.6)		Over 100 million	- (-)
	No answer	3 (3.4)		No answer	- (-)
Non-farm income	Less than 10 million	27 (30.3)	Non-farm income	Less than 10 million	5 (13.9)
	10 ~ 20 million	12 (13.5)		10 ~ 20 million	10 (27.8)
	20 ~ 30 million	10 (11.2)		20 ~ 30 million	7 (19.4)
	30 ~ 40 million	13 (14.6)		30 ~ 40 million	5 (13.9)
	40 ~ 50 million	8 (9.0)		40 ~ 50 million	6 (16.7)
	50 ~ 100 million	8 (9.0)		50 ~ 100 million	2 (5.6)
	Over 100 million	3 (3.4)		Over 100 million	1 (2.8)
	No answer	8 (9.0)		No answer	2 (5.6)

3. 분석 결과

1) 농업 활동 현황

(1) 영농규모 현황

소규모 농가의 경지 소유현황을 보면, 형태별로 밭이 23호(60.5%)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별로 0.5 ha 미만이 17호(44.7%)로 가장 많았다. 임차현황에서는 역시 밭이 14호(36.8%)로 가장 많았고, 면적 또한 10호(26.3%)로 0.5 ha 미만이 가장 많았다. 또한, 조사 대상 소규모 농가 모두 일정 면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소유와 임차를 결합하는 농가는 20호(52.6%)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즉, 일정한 자작 소유 농지를 근거로 농업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주로 밭 농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Table 3. Cultivated land current situation of small family farm households

Unit: Frequency (number), Percentage (%)

Classification	Paddy		Upland		Orchard / Forest land		Total	
	Owned	Leased	Owned	Leased	Owned	Leased	Owned	Leased
Total	10 (26.3)	5 (13.2)	23 (60.5)	14 (36.8)	5 (13.2)	1 (2.6)	38 (100.0)	20 (52.6)
Less than 0.5 ha	5 (13.2)	2 (5.3)	17 (44.7)	10 (26.3)	3 (7.9)	- (-)	25 (65.8)	12 (31.6)
0.5~1.0 ha	4 (10.5)	3 (7.9)	6 (15.8)	3 (7.9)	- (-)	1 (2.6)	10 (26.3)	7 (18.4)
1.0~1.5 ha	1 (2.6)	- (-)	- (-)	- (-)	1 (2.6)	- (-)	2 (5.3)	- (-)
1.5~2.0 ha	- (-)	- (-)	- (-)	- (-)	1 (2.6)	- (-)	1 (2.6)	- (-)
2.0~3.0 ha	- (-)	- (-)	- (-)	1 (2.6)	- (-)	- (-)	- (-)	1 (2.6)

(2) 농업소득 현황

① 재배작목 현황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작목 중 최대 6개 작목의 재배 규모와 방법, 그리고 판매 방법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Table 4와 같았는데, 고추(15호)와 벼(12호)를 재배하는 농가가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총 50종의 작목을 농가당 평균 2.76개씩 재배하고 있었다. 벼 재배 농가는 12호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농가당 평균 0.08 ha (약 240평)에 불과했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는 논보다는 밭에서 양념 채소류 및 과채류의 재배가 주로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가축사육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Cultivated crops of small family farm household

Classification	Cultivated crops (Number of Respondent)
Crops grown by two or more households	Red pepper (15), Rice (12), Lettuce (5), Sweet potato (4), Sesame (4), Garlic (4) Potato (3), Fruit tree (3), Apple (3), Cabbage (3), Radish (3), Spring onion (2) Strawberry (2), Sapling (2), Peach (2), Ginger (2), Chives (2), Soybean (2)
Crops grown by less than two households	Matrimony vine, Tuber onion (<i>Allium tuberosum</i> R.), Wild vegetable, Kale Blueberry, Jujube (<i>Ziziphus mauritiana</i> Lamarck), Water melon, Mushroom Cucumber, Grape, Leaf beet, Melon, Meju soybean, Broccoli, Black bean Onion, Corn, Eggplant, Carrot, Jujube, Head lettuce, Young radish, Cherry <i>Allium fistulosum</i> , Balloonflower, Winter grown cabbage, <i>Rhynchosia Nulubilis</i> , Crown daisy, Perilla leaf
	50 species 106 ea, average per household 2.76 ea

재배 방법은 노지에서 75.5%(80개), 시설에서 19.8%(21개), 노지와 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4.7%(5개)로 조사되었다. 결국, 소규모 농가는 밭을 중심으로 양념 채소류 및 과채류 등을 노지를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량과 소득 증가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판매 방법

소규모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주로 자가 소비나 자신의 사업장에서 소비하는 품목이 31개(29.2%)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 등 조합 14.2%(15개), 온라인 및 개별 직거래 9.4%(10개) 순서였다. 특히, 이들은 재배 작물의 34%(36개)를 두 개 이상의 방법을 복합해 판매하고 있었다.

③ 농가소득 현황

소규모 농가의 농업 총수입을 보면, 1천만 원 미만 농가가 14호(36.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1천만 이상~2천만 원 미만이 9호(23.7%), 2~3천만 원 미만이 6호(15.8%) 순이었다. 이들 소규모 농가는 평균 1천만~2천만 원 미만의 농업 총수입을 얻고 있었다.⁵⁾

다음으로 소규모 농가의 경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농업 총수입이 가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와 ‘농가소득에서 농업 총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10점 척도로 질문했다. 그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았는데, ‘농업 총수입이 가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소규모 농가는 평균 3.05점으로 응답해 농업 총수입이 가계 생활비를 충당하는

Table 5. The importance of gross agricultural income in the household life of small family farms by age group

Age	Household living expenses can be covered (point)	The percentage of farm household income (%)
30's	2.67	43.3
40's	2.00	25.0
50's	2.94	41.9
60's	3.00	42.5
Over 70's	4.14	42.9

Note: 1) $point = \frac{\sum_{k=1}^n a_k}{n}$

2) n: number of respondents, a: point of respondent

5) 문항의 농업 총수입 범위의 중간값으로 평균을 계산했을 때, 1,973.7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1년 농업소득률 34.9%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농업소득은 688.8만 원이다.

데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는 2.00점으로 가장 낮고, 70대 이상이 4.14점으로 가장 높았다. ‘농가소득에서 농업 총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40대가 25.0%로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는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3) 농업 경영규모 증대 의도

소규모 농가가 부족한 농가소득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농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영농규모 증대계획을 조사하였다. 소규모 농가의 영농규모 증대계획은 평균 4.10점으로 나타나 농업경영 규모 증대 의도는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을 3년의 단기와 10년의 장기로 구분한 질문에서도 투자 확대 의도는 4점 이하로 나타났으며, 생산량 증대계획에서는 5.57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농가는 농업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계획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영농규모 확대 의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대 7.00점, 50대 4.56점, 70대 이상 4.14점, 40대 3.50점, 60대 2.38점이었다. 즉, 40대와 60대는 연령대별 평균인 4.10점보다 낮은 영농규모 증대 의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A plan to increase the scale of agricultural management by age group

Age	A plan to increase the scale of agricultural management (point)
30's	7.00
40's	3.50
50's	4.56
60's	2.38
Over 70's	4.14

Note: 1) $point = \frac{\sum_{k=1}^n a_k}{n}$

2) n: number of respondents, a: point of respondent

특히 60대에서 최저점인 2.38점의 증대 의도를 보인 후 70대 이상에서 증대 의도가 높아져 4.14점을 보였다는 점은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데, 70대 이상의 응답자를 면담한 결과, 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의 부족, 고령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등이 높은 증대 의도를 보인 이유였다. 이러한 면담 내용을 60대의 증대계획 점수 2.38과 연결해서 분석해보면, 고령층에 접어드는 60대에서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경영규모를 줄이거나 새로운 일에 대한 어려움과 소득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농업으로 회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연령대 농민이 농업발전의 주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다른 비농업적 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이 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농업으로 회귀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농업은 발전과 성장을 위한 농업이라기보다는 취미 또는 생존 농업의 형태이다. 결국, 이들은 농촌에 거주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가피하게 농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이들의 탈농과 은퇴를 장려하는 방향의 농업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농외활동 현황

(1) 농외 사업 및 취업 현황

경지 규모 1 ha 미만의 38호 소규모 농가 중 2호를 제외한 36호(94.7%)는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과 가족 모두가 농외활동을 통해 농외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 운영의 경우 식품 제조가공업이 7호 농가로 가장 많았으며, 농작업 위탁업 4호, 식품소매업과 기타 업종이 각각 3호로 조사되었다.

Table 7. Current situation of non-farm business

Classification	Support to crop production	Food manufacturing or processing	Food retail	Restaurant or Cafe	Sale of manufactured goods	Machinery or equipment related business	Construction business	Transport business	Lodging business	Other businesses
Total	4	7	3	2	2	1	2	2	2	3

취업 현황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응답하도록 했으며, 38호 소규모 농가 중 30호(78.9%)는 본인, 가족 또는 본인과 가족 모두가 취업을 통한 소득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마을 공동체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는 농가가 10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농작업 위탁업 7호, 기타 민간회사 6호, 건설업 5호 순서로 조사되었다.

Table 8. Current situation of non-farm get a job

Classification	Support to crop production	Employed to another person's farm	A farming association or cooperative	Community Business work place	Food manufacturing or processing	Food retail	Restaurant or Cafe	Sale of manufactured goods	Machinery or equipment related business	Construction business	Transport business	Education service business	Public institution or government office	Teacher or public servant	Political party or Association	Other Private company	Other income activities
Total	7	2	4	10	1	3	1	1	2	5	3	2	1	2	3	6	4

(2) 농외소득 현황

소규모 농가들은 농외활동을 통해서 평균 2천만~3천만 원 미만의 농외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2.8%로 나타났다. 농외소득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점수는 6.83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은 것인데, 이를 통해 농가소득에 농외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 농외활동의 중요성은 Table 9와 같았는데, 40대 농가의 농외소득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5점으로 가장 높았다.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대에서 76.5%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75.0%로 그 뒤를 이었다. Ando와 Modigliani의 생애주기 가설에 조사 결과를 대입하며 분석하면, 30~40대 농가는 자산 형성을 위해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충할 농외소득의 확보가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9. The importance of non-farm income in the household life of small family farms by age group

Age	Importance of non-farm income in household consumption (point)	Percentage of non-farm income in farm household income (%)
30's	8.33	76.5
40's	8.75	75.0
50's	5.73	55.3
60's	7.57	67.1
Over 70's	6.71	61.4

Note: 1) $point = \frac{\sum_{k=1}^n a_k}{n}$

2) n: number of respondents, a: point of respondent

(3) 농외활동 이유 분석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소규모 농가의 농외활동 병행 이유로는 1) 낮은 농업소득 7.03점 2) 생활비 부족 6.76점 3) 노후 대비 6.14점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소규모 농가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농외활동에 참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소규모 농가가 농외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로, 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즉, 농업소득만으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농업과 관계없는 비농업 부문 농외활동을 수행하거나, 비농업적 농외활동과 농업의 결합을 통해 운영성과 향상과 소득 증대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농사는 힘은 많이 들면서 돈은 안 되는 일 이에요. 농사가 잘된 해에는 값이 잘 안 나오고, 잘 안된 해에는 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농사지어서 번 수입은 거기서 거기예요. ... 가게는 농사짓기로 할 때부터 같이 하려고 생각했어요. 농사가 잘될지, 안될지 모르니까요. ... 지금은 슈퍼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지은 농산물을 가져다가 팔고 있어요. (○○○, Age 61)

둘째, 농촌 정주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농외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대부분 농촌 이주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추진하는 경우로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여건과 비농업적 농외활동을 결합해 농가의 소득을 창출한다. 즉, 농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 창출이 주목적이 아닌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는 소규모 농가의 존재에 농촌경제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즉,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다활동성이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농촌 경관의 관리, 취약계층 보호, 노동력 제공과 지역민에게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편과 요양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 농사랑 같이하는 이유요? 농촌에 살면 당연히 농사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사도, 요양원도 모두 소중한 일인데, 경중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Lee ○○, Age 60)

귀촌하려고 건물 짓고 있어요. 공방이랑 카페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밭에 과수나무 심어서 체험도 같이할 계획이에요. ... 나무 키워서 열매를 팔아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공방과 카페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Seo ○○, Age 45)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를 같이 하면서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해요. ... 목장이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축산처럼 가축 키워서 판다는 것보다는 여기가 환경도 좋고, 목장 경치도 좋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지금처럼 카페나 체험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Seo ○○, Age 00)

셋째,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수행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형태이다.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족끼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고용하여 농촌경제의 순환에 이바지하고 있다.

300평 정도에서 무, 배추, 고추를 무농약으로 키워요. 그걸 여기에서 가공하는 거죠. 제품은 가공해서 직거래하고,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 있어요. 원물을 파는 것보다 훨씬 값을 잘 받으니까 가공하는 거예요. (Ha ○○, Age 58)

넷째, 농산물 판매는 정기적인 수입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 해소를 위한 방안이다. 즉, 농산물 판매소득은 수매 후 일괄 입금되는 경우가 다수임에 따라 평상시 사용할 생활비 확보를 위해 농외활동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벼농사로 들어오는 돈은 수매 끝나고 통장에 들어와요. 근데 그전까지는, 농산물 판 대금 들어오기 전까지 평소에 먹고살 돈을 벌어놓는 거지. (Park ○○, Age 73)

농부는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일 년에 한 번 번 돈으로 열두 달을 나눠서 계획적으로 쓸 수 있겠어요? 항상 모자라고 나갈 곳이 생긴다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다른 일을 구해놔야 해요. (Park ○○, Age 66)

농가의 농외활동 계획을 3년 단기와 10년 장기로 구분해 조사했다. 3년 단기 농외활동 계획은 50대까지 상승하여 4.63점을 고점으로 하락 반전하는데, 70대 이상에서 3.14점까지 하락했다. 10년 장기 농외활동 계획은 30~40대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50대부터 상승, 60대에서 5.09점을 고점으로 하락 반전한 후 70대 이상에서 2.93점까지 하락했다. 이를 앞서 분석한 영농규모 증대계획과 비교 분석하면, 50대까지는 농업과 농외활동의 균형적인 병행으로 소득 확보를 계획하지만, 60대는 나이와 노동력 등을 고려해 농업 경영규모를 줄이고자 하기에 농외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둔다고 할 수 있다. 70대는 60대의 농외활동 계획을 이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 습득 등의 부담과 같은 한계로 인해 다시 농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1 ha 미만의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농가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소규모 농가들은 전반적으로 농업소득 수준이 낮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농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소규모 농가의 다활동성이 낮은 소득에 기인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농가의 활동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외활동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농촌은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2, 3차 산업이 공존하는 곳이며 산업 규모와 종사자 역시 농업보다 비농업 부

문이 크다. 따라서 농촌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농업소득의 비중이 낮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과 연계되는 농외활동의 결합 또는 비농업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규모 농가의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외소득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연령대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 청장년층은 가장 적극적이며 광범위한 다활동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비농업적인 사업의 창업이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고령 농민은 점차 농외활동을 줄이고 농업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외활동 수행 능력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농촌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농업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도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결국, 농촌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비농업적인 활동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 농가의 다활동성 상황을 살펴보는 이 연구는 충남지역의 농가만을 사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만으로 국내 다른 지역의 소규모 농가 역시 이러한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품목별 특성이나 규모별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농가를 사례로 하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Submitted, February. 1, 2023; Revised, February. 17, 2023; Accepted, February. 20, 2023]

References

1. Cheong, H. H. and T. Y. Kim. 2016. An Analysis on the Difference in Management Strategies by the Types of Family Farms: The Case of the Leading Farms in Korea-.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43(3): 668-689.
2. Choi, Y. B. 1978. A Theoretical Study on the Increasing Direction of Farm Household Income.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1(2): 109-120.
3. Jang, D. P. 2008. A Comparative Study on Pluriactivity of Farm Households in Rural Villages. Master's degree,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4. Jung, A. 2016. Commodification of Rural Space based on World Heritage in Hahoe Village. Andong City.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8(1): 18-32.

5. Kim, J. A. and J. H. Chai. 2009. Analysis on Income Decision Factor by Farm house Typ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2(4): 1641-1658.
6. Kim, J. S., N. W. Oh, and K. I. Kim. 2016. Pluriactivity of Family Farms in Rural Korea.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pp. 1-106.
7. Kim, J. S. and K. I. Kim. 2017. Pluriactivity as a Livelihood Strategy and the Differentiation of Farm Families in Rural South Korea.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7(1): 7-57.
8. Kim, M. B., N. W. Oh, and U. S. Hwang. 2016. Changes in Income Structure and Policy Implications by Farm Type. *KREI Repository*. 132: 1-24.
9. Lee, D. Y. and I. H. Ha. 2020. Analyzing Financial Performances by Farm Household Types.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47(3): 393-419.
10. Lee, H. W. 2022. An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Pluriactivity in Small Family Farms. Master's degree,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11. Seo, J. H. and S. W. Ryu. 199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n-Farm Income Sources and Policy Direction.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16(2): 137-152.
12. Yoo, C. H. 2022. Expansion of Farm Household Income Safety Net in the wake of the Global Crisis. *Proceedings of 2022 Annual Congress of KAAFP, Korea*, pp. 47-69.
13. Yoo, J. C., J. W. Shin, and T. Y. Kim. 2005. The Case Study on Classification and Pluriactivity of Farm in Less Favored Rural Area.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32(3): 447-474.
14. MacKinnon, N., J. Bryden, C. Bell, A. Fuller, and M. Spearman. 1991. Pluriactivity, structural change and farm household vulnerability in Western Europe. *Sociologia Ruralis*. 31: 58-71.
15. Subramanian, S. 2018. Participation of rural households in farm, non-farm and pluri-activity: Evidences from India.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Change. Bangalore. Working Papers 412.
16. Marsden, T., S. Whatmore, R. Munton, and J. Little. 1986. The restructuring process and economic centrality in capitalist agriculture. *Journal of Rural Studies*. 2: 271-280.
17. Igawe, P. A., M. Rahman, K. Odunkan, N. Ochinanwata, O. P. Egbo, and C. Ochinanwata. 2020. Drivers of diversification and pluriactivity among smallholder farmers-evidence from Nigeria. *Green Finance*. 2(3): 263-283.
18. Niemelä, T. and R. Häkkinen. 2014. The Role of Pluriactivity for Continuity and Survival in Family Farm Firm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Management and Innovation*. 10(4): 7-43.
19. Evans, N. J. and B. W. Ilbery. 1993. The pluriactivity, Part-time Farming, and Farm Diversification Debate. *Environment and Planning A*. 25: 945-959.
20. Turner, M. 1991. Very small farm holdings and the rural economy. *Sociologia Ruralis*. 31(1): 72-81.